

## 2016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41명 최종합격

- 여성 합격자 29명(70.7%)으로 역대 최다,  
최고득점자·최연소 합격자도 여성

### I. 개요

1. 2016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최고득점자와 최연소합격자를 비롯해 여성 합격자가 역대 최다(70.7%)를 기록하는 등 여풍(女風)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.

2. 인사혁신처(처장 김동국)는 2016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41명의 명단을 확정해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, 사이버국가고시센터(<http://gosi.kr>)에 공개한다.

- 올해로 4회를 맞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분야별 합격자는 일반외교 33명, 지역외교 5명\*, 외교전문(경제·다자외교) 3명 등이다.

\* 중동·아프리카·중남미·러시아 독립국가연합(CIS)·아시아 각 1명 등 지역을 세분해 선발

- 특히 여성합격자는 최고득점자\*, 최연소합격자\*\* 등 29명에 달했다.

\* 김예지(여·23세·일반외교,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4년 재학), \*\* 신승희(여·21세·일반외교,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3년 재학)

-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.3세였고, 연령대별로는 23~25세 19명(46%), 26~29세 15명(37%), 30~32세 4명(10%) 등의 순이었다.

3. 2016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사·영어·외국어능력검정점수를 가진 1,058명이 응시했으며, 1차(공직적격성평가·선택형), 2차(전공평가·논문형), 3차 시험(면접)\*을 거쳐 41명의 최종합격자가 가려졌다.

\* 제1차 시험 : 290명 합격, 제2차 시험 : 51명 합격

\*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남성 3명, 지방인재채용목표제로 1명이 추가합격

- 최종합격자는 외교관후보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정규과정(1년)을 이수하게 되며, 종합평가 결과\*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.

\* 교육 성취도, 공직가치관 및 수행자세, 외교업무 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## II. 2016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통계

### 1. 여성·지방인재 합격자 통계

구분		2016년도		2015년도	
		선발예정인원	합격인원(여성/지방)	선발예정인원	합격인원(여성/지방)
합계		36	41(29/1)	37	37(24/1)
일반외교		29	33(24/1)	31	31(22/1)
지역외교	중동	1	1(-/-)	2	2(-/-)
	아프리카	1	1(1/-)	1	1(-/-)
	중남미	1	1(1/-)	1	1(1/-)
	러시아·CIS	1	1(-/-)	1	1(-/-)
	아시아	1	1(-/-)	-	-
외교전문	경제·다자외교	2	3(3/-)	1	1(1/-)

※ 지방인재채용·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추가합격 : 4명(15년 양성·지방인재 추가합격 0명)

※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여성합격자 비율 : 70.7%(15년 64.9%)

※ 여성합격자 현황 : '13년(58.1%) → '14년(63.9%) → '15년(64.9%) → '16년(70.7%)

※ 외무고등고시 역대 최다 여성합격자 비율 : 2007년 21명(67.7%)

### 2. 연령별 합격자 통계

구분	2016년도				2015년도			
	계	일반외교	지역외교	외교전문	계	일반외교	지역외교	외교전문
합계	41	33	5	3	37	31	5	1
20~22세	1(2%)	1	-	-	4(11%)	4	-	-
23~25세	19(46%)	17	2	-	17(46%)	14	3	-
26~29세	15(37%)	12	3	-	8(22%)	8	-	-
30~32세	4(10%)	2	-	2	5(14%)	3	2	-
33세~	2(5%)	1	-	1	3(8%)	2	-	1